스위스는 슬로우 트래블(Slow Travel) 열풍.

휴대폰도 없이 떠나는 것이 진정한 여행

스위스 여행업의 키워드는 '오프라인 홀리데이'와 '디지털 디톡스'
눈으로 보고 지나치기 보다 직접 배워보는 여행이 인기 많아
허브 전문가와 함께 하이킹하며 야생 허브 채취해 볼까?
호텔에 와이파이도 안되고, 전화도 불통인데 투숙객이 넘친다고?
나한테 전화해도 소용 없을걸. 난 지금 '연락 두절' 여행 중
전 도시에 차량 금지 시키고 자전거와 걷기로 하루를 보내는 '슬로우업'도 대세
4 차선 도로에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 인파가 한 가득

여행업에서 지배적인 경향인 "더 빠른, 더 높은, 더 나은"에 반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슬로우 트래블"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관광에서는 이미 캠핑, 걷기, 자전거 등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여행과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떠나거나 여유로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슬로우 트래블'이 각광을 받은지 수년째다. 2015 년 말, 광고 기획사인 이노션이 발표한 '2015 년 직장인의 나홀로 소비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서 '로컬 슬로우 트래블(Local Slow Travel)'을 트렌드로 소개한 바 있다.

1. 슬로우 트래블이란?

슬로우 트래블은 정통성, 지속가능성, 슬로우 푸드에 더 관심을 돌리는 여행 패턴이다. 제한된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체험하려는 해외여행자들이 주를 이루는 글로벌 트래블 비즈니스와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10 일 동안 파리, 이태리, 프라하, 스위스를 둘러보는 초고속 일정으로 관광과 쇼핑까지 섭렵해야 하는 아시아 여행자들에게는 아직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여행 패턴일 수 있다. 하지만 유렵인들을 포함한 스위스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험의 최대화' 자체가 비현실적임을 인식하고 '여유와 쉼이 있는 럭셔리'를 찾는 여행 패턴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슬로우 트래블러가 진정 워하는 것은 규모가 작더라도 실제로 완벽한 것을 체험해 보는 것과 사람과 자연을 직접 만나는 것, 로컬 풍습과 캐릭터를 체험해 보는 것이다. 진정한 슬로우 트래블러라면 단순히 보는 것 보다는 무언가를 직접 배워보기 원한다. 씨름 축제에서 프로 선수들과 모래밭에서 실제로 씨름을 배워보고, 허브 전문가와 함께 하이킹을 하며 야생 허브를 채취해 보는 등의 여행 프로그램이 인기다.

2. 스위스에서 잘 팔리는 연락두절 여행 상품

이런 경향을 배경으로, 스위스에서는 독특한 여행 아이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락 두절 여행"으로, 휴대폰에서 벗어나 세상과 단절된채로 여행을 즐기는 휴가다. 최근에 생 갈렌(St. Gallen)에서 열린 여행 박람회에서 "오프라인 홀리데이(Offline Holiday)"가 크게 광고되기도 했다. 실제로 스위스 인터라켄(Interlaken) 근교의 마이링엔(Meiringen) 마을에 위치한 호텔 로젠라우이(Hotel Rosenlaui)는 이 오프라인 홀리데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인터넷은 물론, 휴대전화도 통신이 불가하다. 객실내에 수돗물도 없어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을 이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에서 시작된 트렌드인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 운동이 스위스 산골마을까지 전해져 여행자들이 소셜 미디어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단절하고, 자연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인기도 대단하다. 로젠라우이 호텔 측은, "인터넷과 휴대 전화 통신망은 물론 TV 와 객실내 수돗물도 없이 100 년이나 된 유서깊은 자연에 둘러싸인 호텔에서 묵으며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며칠 동안 강줄기를 따라 알프스 들판을 거닐며 거대한 빙하를 내려다 보고, 알프스에서 난 식재료로 소박하지만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말이다."라고 디지털 디톡스 여행법에 대해 설명한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3. 스위스인들을 열광케하는 운동, 슬로우업(SlowUp)

또 하나의 열풍은 바로, “슬로우업(SlowUp)” 운동이다. 스위스에서 2000 년부터 시작된 운동으로, 하루 동안 약 30km 의 도로에 동력 차량을 모두 금지시키고, 해당 구간을 따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해를 거듭하며 축제처럼 자리잡게 되었는데, ‘속도는 줄이면 즐거움은 배가 된다’는 철학으로, 참가자 모두가 걷기나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이용해 하루를 즐기고 있다. 슬로우업을 개최하는 도시가 스위스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2016 년 4 월 17 일에는 티치노(Ticino), 6 월 5 일에는 발레(Valais), 7 월 10 일에는 그뤼에르(la Gruyère), 7 월 31 일에는 제네바(Geneva), 9 월 25 일에는 취리히 호수(Zürichsee)에서 슬로우업이 시행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